

## 매스컴 통해 과학대중화 先導 金貞欽박사 가족

잡지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해 국내 과학의 대중화를 한단계 앞당긴 김정흠 고려대명예교수는 2남3녀 등 직계가족 7명 중 5명이 과학의 길을 걷고 있다. 김박사의 부인은 약학, 장남 淳燦씨와 차녀 志禧씨는 의학, 그리고 차남 淳郁씨는 부친의 영향을 받아 물리학을 전공하여 명망있는 과학의 가문을 이루고 있다.

### 부인 장남 차녀는 醫 · 藥學전공 차남은 부친따라 물리학 개척

미국의 칼 세이건이 COSMOS란 책으로 과학의 대중화에 힘썼다면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였던 김정흠(金貞欽)박사는

잡지나 신문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국내 과학의 대중화를 한단계 앞당긴 장본인이다. 다소 작은 키에 동그란 금테

안경의 캐리커처를 가진 김정흠박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어떤 책이든지 과학이 특정인만이 이해하는 어려운 분야가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과학의 특성을 실생활과 연결시켜 이해시킴으로써 생활과학을 통해 대중들이 물리학이란 학문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

#### 어린이에 과학의 꿈 심어

지금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김정흠박사가 직접 저술한 「꼬마과학시리즈」(한국생활과학진흥회)나 「김정흠박사의 재미있는 과학여행(글수레)」 등과 같은 서적을 통해서 과학자의 꿈을 키우고 있을 것이다. 어린이 신문의 대명사인 「소년한국」과 「소년조선」 등에 15년간 기고한 것을 비롯, 청소년들이 보는



▲ 가족과 함께한 김정흠박사. 왼쪽부터 손자 현식, 친구, 김정흠박사, 장남 순찬, 3녀 명희.

웬만한 과학잡지라면 원고를 써낸 김정흠박사는 누가 뭐라해도 과학계몽운동에 독보적인 존재라 하겠다. 김정흠박사의 장남인 김순찬(淳燦)박사 또한 고등학교시절 부친이 쓴 「進路의 助言」(고려학력연구사) 과 「미리 가 본 未來」(샘터社)란 책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차남인 김순욱(淳郁)씨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고려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이학석사를 하고 현재는 오스틴에 있는 Texas주립대학 천문학과에서 Ph.D.를 획득했다. 차남인 김순욱씨가 물리학을 전공하게 된 배경에는 아버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웬만한 도서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책이 쌓여있는 김정흠박사의 연구실에 빼곡히 채워져있는 교양서적들 가운데 '전파과학사'에서 나온 시리즈물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천체물리학에 눈을 떴다고 한다. 물리는 고등학교때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기 보다는 물리에 관련된 교양서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물리와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고 한다.

### 차남淳郁 아버지 강의수강

고려대 물리학과에 들어가선 학부에서 4학기, 대학원에서 2학기를 아버지가 강의하는 과목을 이수했는데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엔 유난히 책이 많은 아버지 연구실에서 책을 보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이럴 땐 밤이 늦어서야 아버지하고 함께 귀가하곤 했는데 불빛이 밝아진 학교 교정을 내려오면서 아버지와 나눴던 여러가지 얘기를 그리고, 차 안에서 함께 했던 시간들이 더욱 소중히 여겨진다고 한다. 김순욱씨는 이때 아버지한테서 직접 물리에 관한 강의와 조언도

많이 들었지만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나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고 한다. 김순욱씨가 하고자 했던 학문은 천체물리학으로 이른 원자핵물리를 한 아버지와 전공에서 다소 차이는 났지만 고대엔 천체물리학 전공이 없어 여러가지 정보나 이론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공교롭게도 천체물리를 더욱 깊이 연구하다 보니 김순욱씨가 공부하는 입자물리학은 핵물리학과 유사해 결국은 아버지가 연구했던 분야도 연구할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 장남淳燦 비노기와 전공

천체물리학은 물리학의 응용분야인 만큼 연구할 분야도 무척 많기 때문에 현재 Texas주립대에서 Post Doc.과정을 밟고 있는 김순욱씨는 국내에 귀국하면 천체물리쪽으로 학계나 연구소에 남아 계속 연구하길 희망한다. 특히 김정흠박사는 알고 있는 지식을 너무도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데 탁월한 재주를 타고 났고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 미국은 학문도 하나의 세일즈로 과학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돈을 쥐고 있는 정치가에게 직접 가서 본인들이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적극 홍보함으로써 많은 연구비도 타내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아버지가 그런 과학의 대중화와 홍보에 적극적이었던 것을 볼 때 무척 앞선 분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장남인 김순찬박사는 현재 위생병원 비노기와 과장으로 있지만 원래는 꿈이 물리학자가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평양의전에서 약학을 전공한 어머니의 권유로 대학입시 직전에 의학으로 방

향을 돌렸다고 한다. 그래서 비록 전공은 아버지와 다르지만 김순찬박사도 아버지 연구실에서 많은 책을 보면서 꿈을 키웠던 아련한 추억을 더듬었다. 여름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을유문화사나 정음사에서 나오는 세계문학전집 전권을 아예 작성하고 읽곤 했다는 김순찬박사는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는 다르게 웬만한 문고판은 다 독파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런 전집류의 세계문학전집은 현재 의사생활을 하는데도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다소 좁아질 수 있는 의학생활에서 책을 통한 간접경험이 사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부친인 김정흠박사 연구실에는 거의 온갖 종류의 책과 잡지가 산재해 있었는데 김순찬박사가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연구실에 있었던 엘빈 토플러의 「미래의 충격」을 읽고 그야말로 충격을 받아 이 책에 대해서 급우들과 많은 토론을 했던 기억은 잊을 수가 없는 추억으로 남는다고 한다.

당시 「미래의 충격」과 같은 책은 현재는 많이 보급되어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읽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책을 접할 기회가 드물어 먼저 이 책을 읽고 흥분한 나머지 친구들한테 과장까지 해가며 얘기하자 친구들이 더욱 놀라 나중에는 하나하나 다시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던 일들을 회고했다. 또한 김순찬박사는 고대 의대재학 당시 의대생들이 교양으로 물리학을 수강하게 되어있는데 그때 의대생들에게 물리학은 들어도 그만 안들어도 그만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언제나 아버지 강의시간엔 의대생들로 가득차 있었고 실체가 배제된 이론물리가 아니라 의대생들이 왜 물리학을 배워야 하는지의 당위성과 일반 물리를 의학에 적용시켜

적절한 예를 들어 설명했던 아버지의 강의는 언제나 명강이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한 번은 김순찬박사가 결석을 한 물리학 시간에 한 친구가 대리출석을 해준 일이 있었는데 김정흠박사가 내가 아는 김순찬이 아닌 것 같으며 결석으로 처리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된 적도 있다고 한다. 삼부자가 고대를 함께 다닐 때는 아버지 김정흠박사와 형인 김순찬박사 모두 키가 작고 스타일이 비슷해 김순찬박사를 김정흠박사로 알고 꾸벅 절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김정흠박사는 교육에 대한 욕심이 대단해 손자 손녀의 학비까지 대주겠다고 할 정도며 실제로 김순찬박사는 이미 결혼을 하고 난 다음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상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등록금은 아버지가 다 내 주었다고 한다.

김정흠박사는 황신영(黃信永)여사와의 사이에 2남3녀를 두고 있는데 장남인 김순찬박사와 차남 김순욱씨 이외에도 장남인 김순찬박사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의학의 길을 선택한 차녀 김지희(志禧)박사가 고려대학교 미생물학교실에서 조교를 하며 이학박사를 했고 현재 국립보건안전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 장녀인 김순희(淳姬)씨는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음악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고 3녀인 김명희(明熙)씨는 미국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물리학의 대가인 김정흠박사의 자녀들은 흔히들 보통 아버지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의사가 되어라, 교수가 되어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오히려 서운했다고 한다. 음악이면 음악, 법학이면 법학 뭐든지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분야에 대해선 적극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데에 대해서 무척 고맙다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리학적인 지식

의 전달보다는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 책을 보는 습관을 많이 배우게 됐는데 오히려 이것이 살아가는데 더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다고 한다.

한편, 평안북도 신의주가 고향인 김정흠박사는 독립투사인 아버지 김시형(金時馨)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생활이 넉넉하진 못했다. 하지만 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1945년 김정흠박사가 중국 북경대학 기계공학과를 다니고 있을 무렵 길거리 자판대에서 파는 여러 책중에서 아인슈타인, 제임스와 같은 세계의 저명 물리학자의 책을 접하고부터 세상에 원자, 분자, 원자핵 같은 물리학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는 어서 빨리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 밖에는 없었다고 한다. 이후 귀국하여 서울대 문리과대학 물리학과에 들어가서 물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게 김정흠박사가 물리와 인연을 맺게 된 배경이다. 이처럼 새로운 학문을 책으로부터 알게된 후로 김정흠박사의 책수집 습관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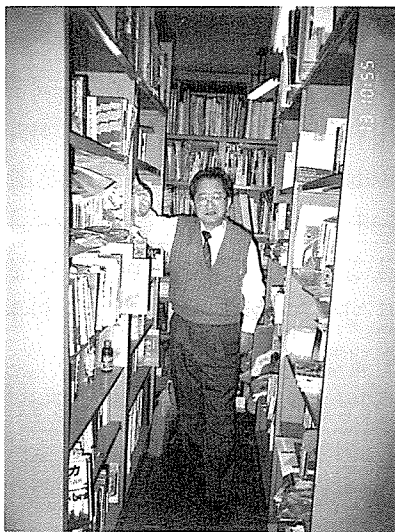
이때부터는 무조건 수입의 10%는 어떤 일이 있어도 책을 사는데 썼고 이런

습관은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김정흠박사는 교회에서 내는 십일조 외에 책 십일조라는데 별도로 더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생을 읽고 수집한 덕분으로 김정흠박사는 수많은 책들을 번역 저술했고 국민의 가슴 속에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심어 주게 된 것이다.

과학용어 25만 단어가 수록되어 있는 사전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각종 백과사전도 몇 세트나 된다. 심지어 간호사 전까지 소장하고 있는 김정흠박사는 이런 막대한 책을 재산으로, 아이디어가 떠올라 연구하고 싶을 때 자료가 부족해서 아이디어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김박사에게는 있을 수 없다고. 그리고 이외에도 외국신문이나 잡지를 포함, 13~14개 정도의 잡지를 구독하고 있으며 몇몇 서점에서는 김정흠박사에게 아예 신간서적 목록을 보내주고 있다. 이외에도 김정흠박사가 과학의 대중화·계몽화에서 국내 독보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철학 가운데 하나는 '남보다 5분만 더 하자'는 것이다.

천성이 부지런하고 활동적인 김정흠박사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각종 물리학회, 천문학회 등의 창립회원이다. 김정흠박사가 고대 물리학과를 명예퇴직할 즈음에는 김박사가 저술한 순수과학기술과 계몽기사를 읽고 감명을 받은 한 노인이 10억을 기부해 장학금으로 쓰도록 했고 각종 학회를 나올 때도 사비로 물리학자로서 부담이 가는 액수의 돈을 기부하고 나올 정도로 후진양성에도 적극적이다. 현재 정보문화센터 이사로 있는 김정흠박사는 지금도 책으로 꽂 차있는 연구실에서 뭔가의 집필에 열중하고 있을 것이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



▲ 장남 김순찬박사와 차남 김순욱씨의 꿈을 키워주었던 김정흠박사의 서적들